

“내년 신규 일자리 올 절반 급감”

24만~30만개 수준… 유럽 재정위기 여파 실물·증시 부정적 영향

민간 연구소·증권사 전망

유럽 재정위기에서 축발된 경기 침체로 내년에 생기는 신규 일자리가 급감할 것으로 전망됐다. 고용 여건이 악화하면 이전보다 소비가 줄어들어 경기를 더욱 짓누르고 주가를 끌어내리라는 요인이 된다.

7일 삼성경제연구소는 내년 취업자 수가 올해보다 24만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물류 10월까지의 평균 증가 인원이 40만7000명에 비해서는 절반을 약간 웃도는 수준이다. 지난해의 32만3000명에 비해서도 부진한 편이다.

연구소는 경기 성장세 둔화와 공공 일자리 창출 감소로 새 일자리가 많지 않을 것으로 분석했다.

대신경제연구소도 삼성연구소와 비슷한 수준인 26만명 증가를 예상했다. 특히, 제조업 취업자 수가 소소세로 돌아서는 등 양질의 일자리가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LG경제연구원은 애초 20만명 초반대 증가를 예상했으나 정부의 일자리 늘리기 정책 강화에 따라 20만명 후반대로 전망치를 올렸다.

이 연구원의 윤상하 책임연구원은 “보건복지 서비스 일자리가 구조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경기만 보면 고용이 나빠질 듯하지만, 정책 효과가 내년까지는 이어질 것이다”

라고 말했다.

증권사들은 연구기관들보다 상대적으로 낙관적인 편이었다. 이를 증권사는 내년 신규 취업자 수가 올해보다는 줄어들지만, 작년 수준은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우리투자증권과 현대증권은 내년 30만명 초반대 수준의 취업자 수 증가를 예상했다.

삼성증권 이승훈 이코노미스트는 “내년에 제조업 일자리는 많이 늘어나지 않지만, 서비스업 고용 증가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내년 신규 취업자 수가 20만명대로 떨어지면 전반적으로 소비가 위축돼 경기를 냉각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

다. 현대증권 이상재 경제분석부장은 “내년 취업자 수 증가폭이 30만명 이상만 유지한다면 한국 경제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20만명대로 떨어진다면 내수 경기 급랭이 걱정된다”고 말했다.

고용 여건의 악화는 주식시장에도 부정적인 요인이다. 경기에 미치는 악영향과 더불어 가계 소득이 감소해 시장 유동성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대신경제연구소 김윤기 경제조사 실장은 “고용이 부진하다는 것은 민간의 여유자금이 줄어든다는 뜻이다. 고용증가 둔화는 증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정부, 2015년 동북아 마리나 ‘허브’ 대책 발표

전남도 해양레저산업 육성 탄력



목포 마리나 항만

목포·여수 마리나 운영

해남·진도 등 조성 예정

정부가 오는 2015년까지 동북아시아 요트·마리나 허브 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한 ‘마리나산업 육성대책’을 내놓아 전남도의 선도 전략산업인 해양레저산업 육성에도 탄력이 불을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7일 발표한 ‘마리나 산업 육성대책’에서 2015년까지 동북아의 요트·마리나 허브 국가로 도약한다는 목표 아래 마리나산업에 대한 수요를 늘리고 해양레저스포츠의 저변을 확산하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해양레저스포츠 무료체험 프로그램 대상을 올해 18만명에서 내년 50만명 규모로 확대하고 요트 조종면허, 기상특보시 운항 제한 등 이용 관련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마리나는 요트·보트의 정박은 물론 수리·판매·생산과 레스토랑, 숙박시설, 컨벤션 센터 등 종합 서비스를 망라한 바다, 강, 호수 등지의 항만시설을 일컫는다. 해양관광의 핵심 인프라로 꼽힌다.

도심과 가까운 한강과 4대강 보에는 해양레포츠 체험교실을 개설한다.

또 전국 대학교와 연계해 요트 수업을 늘리고 현재 해양경찰청에서만 발급하는 요트 면허를 민간 교육기관도 교육 이수자에게 발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내년에 180억원을 들여 전국 주요 연안항에 공공 계류시설을 건설키로 했다. 현재 국내 전체 요트는 6967척으로 추산되지만 계류용량

■ 전남 마리나항만 대상지 위치



은 1240척에 그쳐 계류시설이 부족한 실정이다.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마리나 항만 내 주택 분양이 가능하도록 마리나 시설에 주거시설을 추가하고 사업 시 행자에 부동산투자회사를 포함할 수 있도록 마리나법과 시행령도 손질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번 대책으로 2015년까지 국내 요트·보트가 2만2000척으로 늘고 마리나는 35개로 증가해 3만명의 일자리가 생기고 2조1000억원의 부가가치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했다.

전남에는 현재 목포, 여수 소하 등 2개의 마리나가 운영중이고 함평은 개발 중이며, 2019년까지 해남 화원, 진도 괭목, 완도, 고흥 남열 등에 마리

나항만이 조성될 예정이다.

전남도는 해양레저산업의 최적지인 서남권을 보트·요트의 국제적 공급기지로 조성하기 위해 지난 10월 ‘해양레저산업 발전 로드맵’ 발족하고, R&D·마케팅·기술 지원과 인력양성 등 다양한 기업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또 조경량 고강도 소재로 각광받는 탄소섬유를 소재로 한 고급 크루즈보트 개발사업에 본격 착수했다.

/김지율기자 dok2000@kwanju.co.kr

정부 “북서도 ‘백두산 폭발설’ 확산”

화산법 제정 주민불안 불식 의도

북한이 최근 지진·화산 피해방지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것은 북한 내에서 ‘백두산 폭발설’이 확산된 것과 관련이 있다는 정부의 분석이 나와 주목된다.

통일부는 이 동향분석 자료에서 “이번 법 제정은 대내적으로 체계적 방제대책 마련을 통해 주민들의 불안을 불식하고 대외적으로는 방제 관련 국제화를 이끌어 내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북한의 방제 관련 조항은 소방법, 산림법, 환경보호법, 바다오염방지법 등에 들어져 있고 화산 관련 규정은 없었다”며 “잔재한 방제 관련 조항을 통합하고 화산 및 지진과 관련 미비한 내용을 보완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백두산 폭발 가능성은 학계를 중심으로 지난해부터 제기됐다. 백두산이 겨울에 분화하면 화산재가 북풍 또는 북서풍을 타고 황북쪽으로 내려와 이상 저온 현상이 나타나고 항공기 운행 중단 등의 피해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연합뉴스

手無分錢

직장인 꿈은 을 사자성어

취업포털 사람인은 최근 직장인 776명에게 물려줄 죽약하는 사자성어를 설문한 결과 ‘수무분전(手無分錢)’을 꿈은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고 7일 밝혔다.

이는 ‘가진 돈이 한 푼도 없다’는 뜻을 가진 성어로 직장인들의 어려워진 경제 사정을 대변한다고 사람인은 설명했다.

다음으로는 고생 끝에 나아온다는 ‘고진감래(苦盡甘來)(12.5%)’, 힘의 강한 사람들 사이에 끼어들어 피로움을 겪는다는 ‘간여제조(間離齊楚)(8.5%)’ 등이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큰 뜻을 품고 시작했으나 중도에 그쳐 오히려 훨씬 못한 결과로 끝났다는 ‘묘효류견(描虎類犬)(7.9%)’, 모든 일이 기망이 없어 체념한다는 뜻의 ‘만사휴의(萬事休矣)(7.6%)’ 등을 꿈은 직장인도 많았다.

/연합뉴스

한국인구 2030년 5200만명 정점

2060년 4400만명

10명중 4명 고령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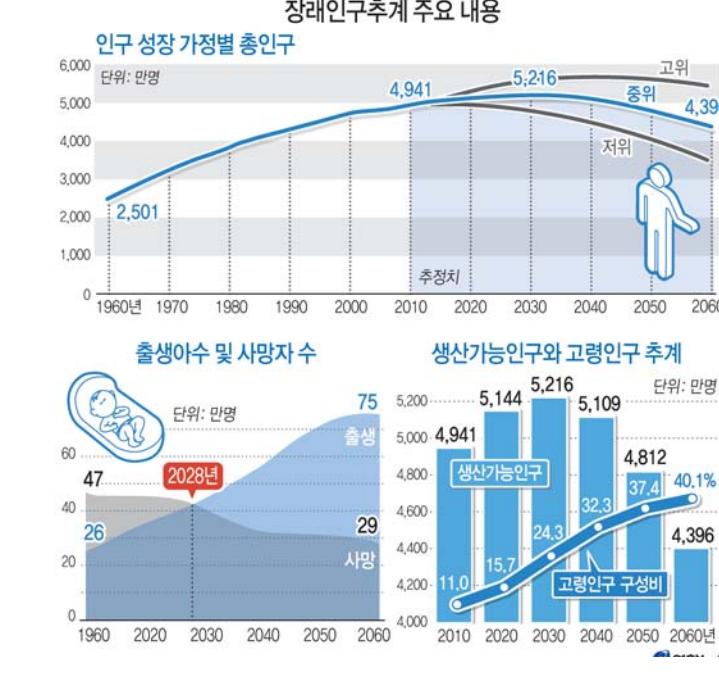
우리나라의 총인구가 저출산의 영향으로 2030년 5200만명대에서 정점을 찍고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2060년에는 65세 이상의 고령자가 인구 10명 중 4명을 차지하고, 경제활동이 가능한 인구보다 그렇지 않은 인구가 더 많을 것으로 전망됐다.

통계청은 7일 발표한 ‘2010~2060년 장래인구추계’에서 한국의 총인구가 2010년 4941만명에서 2030년 5216만명까지 성장한 뒤 2060년에는 1992년 수준인 4396만명으로 줄 것으로 추산했다.

인구 성장률은 2010년 0.46%에서 2020년 0.28%로 감소한 뒤 2031년부터는 마이너스 성장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됐다. 2060년의 인구 성장을 추정하는 -1.0% 내외다.

이같은 인구추계는 5년 전 2005년을 기준으로 한 주계보다 인구가 최대치에 도달하는 시기가 12년 늦춰졌다. 당시엔 인구가 2018년에 4천934만명을 기록하면서 정점을 찍고 이후 줄어들 것으로 예



상했다. 이 때문에 주택경기, 에너지·전력 계획, 국민연금을 비롯한 각종 연기금, 건강보험, 국가 재정 등 통계청의 인구 추계를 바탕으로 한 장기전망치가 수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2060년에는 생산가능 인구 10명이 노인 8명과 어린이 2명 등 10명을 부양해야 할 것으로 예상됐다. 고령인구가 2017년 유소년인구를 초과해 2060년에는 유소년인구의 4배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연합뉴스

농성동 리더스하이 주택전시관

매매

사업명	(주)혜주주택전시관 및 사옥신축공사
사업장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645-1번지
대지 면적	2,411.20㎡(79.39평)
용도지역	일반미관지구, 최고고도지구, 준주거지역
건폐율	59.53%(법정 : 60%)
구조	지하 0층 지상 9층
건축면적	1,435.47㎡(434.23평)
주차대수	80대(법정 72대) : 본관 24대, 부설주차장 56대
승용차 강기	17인승(4대), 15인승(1대) 총 5대
에스컬레이터	상, 하 전용왕복 에스컬레이터 시공 : 1층~7층까지 설치
등	근린생활시설(금융, 소매점, 일반음식점), 문화체육시설 및 업무시설
정부기획(김정가)	14,000,000,000원
매매예정가격	12,000,000,000원
현공정율	약 85% 진행
적용가능용도	예식장, 주택전시관, 업무시설, 컨벤션센터, 일반전시관, 교육장, 학원시설 및 실내 휴트니센터, 워터파크, 영화관, 극장, 종교집회시설, 병원등 최대총고가 7.5m 이므로 다양한 건축물의 시설군, 용도군 도입 가능함
면적별 면적	1,374.92 415.91 4.8m 2,136.28 407.25 7.5m 1,355.08 409.91 7.5m 1,359.78 411.33 7.5m 1,360.28 411.48 3.75m 665.60 198.32 3.75m 1,375.18 415.99 4.8m 1,385.18 419.02 4.8m 1,330.88 402.59 4.5m 소계 11,543.18 3,491.81
면적별 면적	14,000,000,000원 12,000,000,000원 약 85% 진행 예식장, 주택전시관, 업무시설, 컨벤션센터, 일반전시관, 교육장, 학원시설 및 실내 휴트니센터, 워터파크, 영화관, 극장, 종교집회시설, 병원등 최대총고가 7.5m 이므로 다양한 건축물의 시설군, 용도군 도입 가능함
문의처	010-3625-6984
임대문의	062)222-0527

무등빌딩임대

- 최상의 업무지역,
- 금융지역, 상업지역
- 지하철역세권
- 신형 주차시설 완비
- 중앙공급식 냉·난방
- 탁월한 무등산 조망권
- 면적 330평 / 층 (분할임대 가능)
- 용도: 사무실, 판매시설



현대공인중개사

토지 매매

- ▶ 자연녹지